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⑯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편액



▶ 한줄 요약
현판은 목조각과 서예, 단청미술이 결집된 산물이다.

왕이 쓴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편액

편액은 건축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문화재로 지정된 편액 두 점 불과 해강이 쓴 글씨 대자체 편액 전형 '무량수전', 14세기 고려시대 편액

사찰편액은 하나의 불국정토 상징

'문자향 서권기(文字香 書卷氣)'라는 문장이 있다. 추사 김정희가 쓴 글이다. 글과 학문을 깊이 익힌 사람에게서 저절로 묻어나는 내면의 향기를 이른다. 18세기 프랑스 박물학자 뷔퐁이 말했다. "글이 곧 사람이다" 이때의 글의 의미는 문장이다. 사람이 쓰는 글씨 속에도 저마다의 개성과 삶의 태도가 밴다. 글씨에 미묘한 기운이 있고, 표정이 있다. 글도 생명력이 있어 살아 꿈틀거린다. 당대 최고 수준의 글은 명필의 글을 모은 법첩(法帖)이나 금석문의 비첩(碑帖)에 전해진다. 법첩과 비첩은 서예 교과서로 활용된다. 건축물의 현판도 명필의 보고다. 한국의 궁궐이나 사찰, 향교, 서원, 누정 등은 현판 글씨의 진열장과 다름없다. 하나의 현판은 목조각과 서예, 단청미술이 결집된 산물이다.

'현판(懸板)'은 '글을 쓴 널빤지를 걸었다'는 의미다. 현판 대신 '편액(扁額)'이라 부르기도 한다. '액'은 '이마'로서, 편액은 건축물의 이마에 내건 글씨 쓴 판재라는 뜻이다. 둘 다 같은 의미이지만 현판 개념의 폭이 더 넓다. 중건기라든지 시문 등을 적은 널판, 기둥에 내건 주련 등도 현판의 개념에 포함된다. 편액은 건물의 이마 부분에 건 당호 현판으로 한정된다. 편액은 출입문 위 처마 아래 정중앙에 걸고, 건축물의 당호를 쓴 현판이다. 건축에 편액을 거는 것은 사람의 작명처럼 생명을 불어넣는다.

사찰건축에 편액을 거는 순간 하나의 불국토로서 건축은 생명력을 가진다. 불교건축에서 하나의 편액은 하나의 불국정토를 상징하고, 하나의 승가공동체, 수행공간임을 증명한다. 청정하고 성스러운 국토로서의 위상을 부여하는 힘을 가진다. 그만큼 글의 무게도 엄중하고 무겁다. 사찰편액에 당대 최고의 명필과 인연이 닿을 수밖에 없다.

사찰의 관문인 일주문에 걸린 편액은 한국의 전통목조건축이 간직한 현판 미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양산 통도사의 '영취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의 '가야산 해인사', 순천 송광사의 '대승선종 조계산 송광사', 구례 화엄사의 '지리산 화엄사', 구례 천은사의 '지리산 천은사' 등의 일주문 편액이 대표적이다. 이 일주문 글씨들은 큰 글씨로 화면을 가득 채우는 대자체(大字體) 편액 글씨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글자에 힘이 흐르고 법도를 갖췄다. 흘림 없이 반듯하게 쓴 해서체가 대부분이다. 부드러우면서도 굵은 획의 뼈대엔 강직한 힘이 실려 있다. 위엄과 성스러움을 갖춘 대웅전 같은 불전 건물의 편액 글씨체는 대부분 해서체다. 획에 힘과 엄격한 규범이 있어 편액의 대자체에 적합하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편액(공민왕)



위에서부터 차례로 양산 통도사 일주문 편액(흥선대원군), 합천 해인사 일주문 편액(해강 김규진), 순천 송광사의 해강-죽농의 합작 편액, 해남 대흥사 '무량수각' 편액(추사 김정희)

의창군, 대원군, 추사, 원교, 해강의 글씨

그렇다면 편액의 글씨들은 누가 썼을까? 사찰 현판 글씨를 쓴 사람은 크게 첫째, 왕, 왕자, 대원군의 왕족. 둘째, 당대 서예 명필가. 셋째, 고승 명필가 등이다. 이들 중 신라의 김생, 고려 공민왕, 조선 선조의 여덟 번째 아들 의창군 이광, 흥선 대원군, 추사 김정희, 원교 이광사, 해강 김규진의 글은 단연 시선을 끈다. 이들이 쓴 사찰편액은 한국산사 편액의 정수로 평가된다. 김생의 편액 글은 직접 남긴 유묵이 아니라 글을 한 자씩 모아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별한 사례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쓴 사찰편액도 있다. 여수 흥국사에 현존하는 '공북루(拱北樓)' 현판이 충무공의 글씨다. 현판에 '계사동 수군절도사서(癸巳冬 水軍節度使書)'라는 관지가 남아 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다음해인 1593년에 이순신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명필가들이 남긴 사찰편액은 다음과 같다.

△신라 김생의 글(집자):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강진 백련사 '만덕산 백련사' 등. '만덕산 백련사' 현판 글은 골기가 곧고 힘차다. 세로 편액이라 독특하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흥 보림사 일주문에도 같은 세로 두 줄 형식의 편액 '가지산 보림사'가 걸려 있어 비교가 된다.

△의창군 이광의 글: 구례 화엄사 일주문의 '지리산 화엄사'와 '대웅전' 등. '지리산 화엄사' 편액의 좌측에 '황명숭정구년 세사병자중추 의창군광서(皇明崇禎九年 歲舍丙子仲秋 義昌君珖書)'라고 쓴 관지가 있다. 의창군 이광이 1636년에 썼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정함고 위엄이 돋보이는 화엄사 '대웅전' 해서체 글씨는 하동 쌍계사, 예산 수덕사, 장성 내장사, 서울 조계사 등 전국 각지의 대웅전 현판에 유행처럼 모각됐다.

△흥선 대원군의 글: 양산 통도사의 '영취산 통도사', '금강계단' 등. 서울 '화계사'와 '흥천사', 남양주 '흥국사' 편액도 대원군의 글씨다. '금강계단'과 '영취산 통도사'는 검은 옻칠 바탕을 만들고 글을 양각으로 새긴 후, 글 위에 금박을 입혀 완성했다. 위엄 있는 왕실 편액 형식을 보여준다.



왼쪽부터 구례 천은사 일주문 편액(원교 이광사), 순천 송광사 일주문 편액(작가미상), 강진 백련사 편액(신라 김생의 글 집자)



왼쪽 위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구례 화엄사 일주문 편액(의창군 이광), 여수 흥국사 공북루(충무공 이순신), 영천 은해사 불광(추사 김정희)

현판의 글, 세계기록유산의 가치

△추사 김정희의 글: 영천 은해사의 '불광(佛光)', '은해사', '대웅전', '보화루', '산해숭심(山海崇深)', 해남 대흥사의 '무량수각', '일로향실', 하동 쌍계사의 '세계일화 조종육엽', 구례 화엄사의 '화장(華藏)', 서울 봉은사의 '판전(板殿)' 등. 특히 '무량수각'과 '일로향실', '세계일화 조종육엽'의 편액은 전국 각지의 사찰에 모각돼 걸려 있다. 화엄사의 '화장(華藏)' 편액은 한국산사 편액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편액의 화면에 꽃비가 내리고 있다. 봉은사의 '판전' 편액 글씨는 추사가 임종한 해인 1856년에 썼다. 숱한 현판 중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단 두 점에 지나지 않는다. 봉은사 '판전'과 영주 '소수서원' 편액이다. 각각 서울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이다. 부석사 '무량수전', 은해사 '불광', 해강 김규진의 해인사 일주문 편액 등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충분함에도 도외시되고 있어 안타깝다. 전국의 궁궐, 사찰, 향교, 서원, 누정 등에 광범위하게 현존하는 현판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원교 이광사의 글: 구례 천은사 일주문의 '지리산 천은사', 고창 선운사 요사채에 걸려 있는 고요한 움막집이라는 뜻의 '정와(靜窩)', 해남 대흥사의 '대웅보전', '침계루' 등. 원교는 1755년 나주 벽서사건으로 조선의 최북단 함경도 부령에서의 7년 유형에 이어, 최남단인 전라도 완도 신지도에서 15년, 총 22년을 유배지에서 살다 삶을 마감했다. '동국진체'라고 불리는 그의 글 속에는 유배지인 완도 앞바다의 파도가 일렁인다. 글씨의 획이 물처럼 흐른다. 어떤 틀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에의 의지가 읽혀진다. 다산 정약용은 원교의 글씨를 두고 "자형(字形)이 가증스럽다"고 혹평하였지만, 원교의 글씨에는 남도 특유의 애환과 삶의 비장미가 묻어난다. 원교의 글 속에는 원교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다. 글 속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원교의 글은 울림을 준다.

△해강 김규진의 글: 합천 해인사의 '가야산 해인사', 상주 남장사의 '노악산 남장사', 삼척 영은사의 '태백산 영은사', 서산 개심사의 '상왕산 개심사', 하동 쌍계사의 '삼신산 쌍계사' 등 한국산사 일주문 편액의 원숙미를 보여준다. 무거울 대로 무겁고, 농익을 대로 농익었고, 깊을 대로 깊다. 4m 길이를 넘나드는 해강의 일주문 편액 글씨는 장대하고, 묵직하며, 당당하다. 편액 대자체(大字體)의 품격과 격조를 갖추고 있다. 해강의 글씨를 단 일주문은 글씨만큼 당당하고 늠름하다. 글이 건축을 살려낸다. 글의 힘과 생명력을 실증한다. 해강 글씨의 편액 중에서 독특한 형식도 더러 현존한다. 죽농 안순환과 합작해서 만든 편액이 그것이다. 해강이 글을 쓰고, 죽농이 난과 대나무를 쳐서 글과 그림, 목각이 있는 독특한 현판을 선보였다. 그 같은 편액은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마곡사, 은해사, 백양사, 전등사, 위봉사, 보석사 등 10여 곳 사찰에 현전한다.

옻칠한 바탕을 양각한 후 글씨에 금박

고려 공민왕의 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봉화 청량사 '유리보전' 등. 부석사 '무량수전'의 현판 뒤에 다음과 같은 묵서명이 남아 있다고 한다. "금당의 글씨는 공민왕이 쓴 것이다. 〈중략〉 신미년(1691) 여름엔 이 절 화승 영필이 마음을 내서 액자 테두리를 다시 만들었다(金堂題字, 恭愍王之親筆也, 〈중략〉 到于辛未孟夏間, 寺畵僧瑛玭慨然傾心四雪角改造也)" 묵서명은 글씨는 고려 공민왕의 것이고, 편액의 테두리는 17세기 후반에 보수한 것임을 알게 한다. 홍건적의 침략을 피해 영주, 안동으로 몽진하다 개경으로 돌아간 1361년~1363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무량수전'의 편액은 정사각형 형태다. 두 장의 널빤지를 연결해서 정사각형 바탕 판재를 만들었다. 바탕은 윤기가 흐를 정도로 옻칠을 입혀 검게 마감했다. 바탕을 얕은 부조로 양각한 후, 글에 금박을 입혔다. 금박은 세월에 벗겨져 흰색 글씨로 보이지만, 글씨에 금박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정사각형 바탕을 4등분하여 무량, 수전 두 자씩 세로로 써 내렸다. 편액 테두리는 비스듬한 각을 가진 네 개의 빗각 판재로 결구했다. 빗각 테두리의 표면엔 삼청으로 가칠단청 하였고, 테두리 단면은 봉긋봉긋한 구름 형상처럼 우아하고 대칭적이게 잘라냈다. 편액 구성이 단순하고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아담하고 세련된 구성미가 살아있다. 글은 골기가 있는 굵은 해서체의 획으로 편액에 가득 차게 썼다. 부석사 '무량수전' 편액은 650여 년 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것도 그림과 글에 뛰어났던 14세기 고려 공민왕의 글씨이다. 그것은 한국산사가 간직한 서예의 미(美)이자, 또 하나의 고려시대 기록문화 목판이며,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목공예 걸작이다. 〈사진작가〉

일일시호일

가까스로 심정지 벗어났지만
디스크까지 겹쳐 고통

한국서 홀로 가족 생계 책임지던 스리랑카 이주민 삼밧씨
병원비 1000만원에 허리 · 무릎 수술… "가족 위해 일어나야"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